

현대 프랑스철학을 통한 우리의 철학함

90년대 들어 뚜렷한 흐름... 우리 자신에 무게중심 두고 소화해야

이정우

서강대 교수·철학

한국 철학은 유교, 불교, 도교 등 인도와 중국에서 생겨난 철학들을 흡수해 나름대로 전통을 형성해 왔다. 현대에 들어와 전통과 단절이 생겼으며 서양철학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난날 한국에서 서양 철학이란 곧 독일철학이었다. 우리는 서양 철학을 일제 치하에서 배웠으며 자연히 일본의 동맹국인 독일문화가 우리의 인문학계, 나아가 법학계나 의학계까지 지배했다. 해방이 된 후 서구문화 수입의 거점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한국이 미국의 반(半)식민지가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유학에 열을 올렸으며, 일본-독일식의 수입문화가 미국식의 수입문화로 전면 개편되기에 이르렀다. 독일어가 차지하던 자리를 영어가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철학의 국내 발흥

이 과정에서 다른 몇 가지의 흐름도 형성되었다. 전통의 단절에 대한 깊은 반성이 그 하나이다. 낡은 유물로 치부되던 동양 사상들이 다시 연구되기 시작했고 동양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나아가 서구문화 또는 그 뿌리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반성이 생겨났다. 무터대고 칸트, 헤겔을 읽는 풍토에서 벗어나 그리스철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흐름은 마르크시즘의 흐름이다. 군정(軍政)에 저항하던 많은 지식인들은 이론적 무기를 갈구했으며 마르크시즘이 그 갈증에 답했다. 동양철학, 그리스철학, 마르크시즘이 연구되면서 한국철학은 보다 풍요로워졌고 다원화되었다.

90년대 들어와 뚜렷한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것은 프랑스철학 연구의 발흥이다. 우리는 이 발흥에서 두 가지의 상반된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 군정 하에서 마르크시즘에 몰두하던 많은 지식인들은 90년대 들어와 급격하게 변화된 현실에 마주쳐 새로운 사유를 필요로 했다. 프랑스의 철학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미셸 푸코가 이러한 필요에 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푸코를 마르크스의 보충으로서 또는 대안으로서 읽기 시작했다.

90년대 뚜렷한 흐름은 프랑스 철학연구의 발흥이다. 마르크시즘에 몰두하던 지식인들은 90년대의 변화된 현실에 마주쳐 새로운 사유를 필요로 했다. 독일이나 영미철학자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 프랑스철학의 사유함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다. 프랑스철학의 참신한 활력은 이제 우리의 철학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다.

그 맞은편에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해되고 있는 프랑스철학이 있다. 미국에서 문학, 예술, 사회학 등을 공부하고 돌아온 학자들이 이러한 흐름을 형성했다. 전자의 흐름이 우리 역사의 내적이고 연속적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성립했다면, 후자의 흐름은 우리 역사에 대해 외적이고 불연속적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성립했다. 이 두 흐름이 프랑스철학의 발흥에 큰 힘을 행사했다.

나 자신을 포함해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 두 흐름과는 다른 맥락에서 프랑스철학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프랑스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나 그들 사상의 시대적 배경보다는 그들이 철학하는 방식에 매료되었다. 푸코를 비롯한 많은 프랑스 철학자들의 철학함은 분명 독일이나 영미의 철학자들과는 확연히 구분되었다. 이 특성을 파악한 사람들은 프랑스철학에서 철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철학함을 배웠다. 이들은 프랑스철학에서 어떤 지식이나 결론을 배웠다가보다는 사유함의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이다.

우리의 철학함의 방향

위의 세 흐름 말고도 또 다른 많은 흐름들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프랑스철학이 오늘날 우리의 사유에 참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참신함을 소화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되, 앞으로 우리의 철학함은 다음 몇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



서점가에 나와 있는 현대 프랑스철학·관련서들.

야 하리라고 본다.

첫째, 프랑스철학을 그 자체의 맥락에서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프랑스철학은 신좌익도 니체주의도 포스트모더니즘도 아니다. 현대 프랑스철학은 이러한 방식들로서는 정리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멘스 드 비랑으로부터 리코르에 이르는 반성철학의 전통, 쿠르노로부터 세르에 이르는 과학철학의 전통, 콩트로부터 부르디외에 이르는 사회철학의 전통, 보편학으로서의 구조주의의 전통, 푸코·들뢰즈·데리다 등 구조주의를 넘어서고자 노력하는 새로운 철학들, 베르나르로부터 오늘날의 자코·모노·돔·프리고진 등에 이르는 메타과학의 전통 등 수많은 흐름들이 공존한다. 이 풍요로운 프랑스철학의 장을 니체주의니 포스트모더니즘이니 하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둘째, 이제 우리는 '나는 프랑스철학을 한다' '너는 독일철학을 한다' '그는 영미철학을 한다'는 식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스철학으로부터 오늘날의 서구철학에 이르기까지 서구철학 전체를 보아야 하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을 잘 소화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제 서구철학의 흐름을 줄줄 따라다니면서 주석을 다는 일이 철학함 그 자체로 간주되는 시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셋째, 철학은 학문으로서의 보편성과 행위로서의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서구철학의 수준 높은 사고를 배우는 것은 보

편성의 차원이요, 자기 자신의 문제 또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서 철학함은 특수성의 차원이다. 이제 우리가 서구철학으로 빨려들어가던 시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우리 자신에 무게 중심을 두고서 필요한 서구 사상을 소화해 받아들이는 시대로 들어서야 하는 것이다. ❖

현대 프랑스철학 관련서들

- 《68사상과 현대 프랑스철학》 그뤼페리, 앙랭 르노 / 인간사랑
- 《현대 프랑스철학의 성격 논쟁》 알렉스 켈리니코스 외 / 갈무리
- 《철학의 탈주》 이진경 외 / 새길
- 《프랑스철학 강의》 九鬼周造 / 교보문고
- 《프랑스 철학사》 이광래 / 문예출판사
- 《프랑스 철학사》 A. 로비네 / 서광사
- 《현대 유럽철학의 흐름》 리차드 커니 / 한울
- 《현대 프랑스사상의 파노라마》 J. 라크루아 / 탐구당
- 《오늘의 프랑스철학》 크리스티앙 데캥 / 책세상
- 미셸 푸코 / 알튀세르 / 들뢰즈 / 보드리야르 / 자크 라캥 / 데리다 / 부르디외 / 미셸 세르 / 에드가 모랭 / 리오타르 / 로제 카이와 / 앙랭 투렌 등의 번역이론서